

CATHOLIC KYOTO DIOCESE

Catholic Chancery Office
Kawaramachi Sanjo Agaru
Nakagyo-ku, KYOTO,
604-8006 JAPAN
TEL: +81-75-211-3025
FAX: +81-75-211-3041

カトリック京都司教区
〒604-8006
京都市中京区河原町三条上ル
TEL:(075)211-3025
FAX:(075)211-3041
e-mail:curia@kyoto.catholic.jp

Kyo.Prot.N.82/2020

2020年9月25日

교토교구의 신자여러분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미사등 교회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 (7 번째)

교토교구는, 2020年7月7日 발표한 「미사등의 중지조치 (6 번째)」에서, 미사등의 집회의 재개와 재개중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7月~9月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지금까지 제시했던 「감염예방대책」을 확실히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10月1日(木)부터, 미사등의 교회활동의 재개를 불려의 상황에 맞게 허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염예방대책

- ① 「미사 등, 집회를 행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kyo.Prot.N. 56/2020)을 확실히 충족시켜주시고, 특히 성체분배전의 사제·성체분배봉사자·성체를 모시는 신자들의 손가락의 소독방법을 고안해서 철저히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참가자명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 ③ 많은 성당이 신자수 제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속성당 이외의 미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분간은, 미사나 다른 집회에서 성가를 「전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르간 독주, 거리를 두고서의 독창, 성가대 등의 적은인원에 의한 성가 (넓은 공간이 있는 경우만)는 가능합니다.
- ⑤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감염되었을 경우 중독화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불안하신 분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외출함에 있어 불안하신 경우에는, 지금처럼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 ⑥ 주일미사의 참가의무를 교토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당분간은 계속하여 면제합니다.

7 月부터 전국적인 감염확대, 소위 제 2 차 코로나감염 역시 완전히는 수습되지않았습디만, 교토교구 이외의 다른 교구에서는 각각의 교구들이 감염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행히 가톨릭교회에서 집단감염(크러스터)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지않았습디다. 감염에는 여세가 있어, 앞으로 가을 겨울을 향하고 있고, 재차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교토교구는 감염예방대책을 확실히 실시하는 조건으로 미사 등, 교회활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국가 및 교토교구의 불력이 속해있는 각 지자체에따른 긴급사태선언 또는 이동의 자숙 등이 요청될 경우에는 다시금 미사등의 활동이 중지될 것입니다.

이상.